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위탁계약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당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수당 청구 일부 인용

임금청구 인용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원	건 고	2018가합	임금
		1.	
		2.	
		3.	
		4.	
		5.	
		6.	
		7.	

1 / 29



8.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주식회사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범위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에 대하여는 각 2017. 11. 23.부터, 원고 에 대하여는 2018. 1. 24.
부터, 원고 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각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들은 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수리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이 위탁 형식이라는 점 때문에 일한 기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퇴사한 뒤 받지 못한 수당을 돌아보더라도 계약서의 명칭이나 회사의 설명 때문에 청구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와 법정수당을 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해울은 여러 설치·수리기사를 대리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2 계약의 명칭과 수당 청구를 함께 검토하다

용역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서 임금과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은 일반적인 미지급 금액의 정산보다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 관계에 기초해 어떤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계약의 이름만으로 권리 검토를 끝낼 수 없는 분쟁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하더라도 각자의 청구 내용과 인정 금액은 구분됩니다. 판결은 별지의 원고별 인용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공통된 업무 형태를 살피는 것과 더불어, 개인별로 어떤 범위의 금전 지급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대응의 핵심

용역위탁계약으로 일한 설치·수리기사들을 대리하여, 회사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켜온 일자리와 일한 대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탁계약으로 일한 설치·수리기사. 해울은 법정수당 청구 일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는데 개인사업자라고만 한다면?
- 설치·수리·배송 업무 후 받지 못한 수당이 남았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의 대응

법무법인 해울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청구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문제를 임금 소송으로 다루고, 법원에서 금전 지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수행한 업무와 요구하는 권리를 소송의 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울은 계약 형식으로 인해 권리 주장을 망설이던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리하여,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들에게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별 구체적인 지급액은 판결에서 정한 인용 범위에 따르며, 이 사례는 설치·수리기사들의 법정수당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업무를 수행한 뒤에도 자신에게 임금 청구의 여지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표제만 보고 권리 검토를 멈추지 않고, 법정수당 지급을 소송에서 다툰 사례입니다. 실제 업무 관계와 각자의 근무 자료를 함께 살피는 것이 다음 대응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로 확보한 성과

회사의 원고별 금전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아, 수당 청구의 재판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위탁계약으로 일한 설치·수리기사. 해울은 법정수당 청구 일부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 퇴사 후 휴일·연차 관련 수당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동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같은 문제를 겪었다면?
- 계약서와 실제 일한 방식이 달라 권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